



지진해일 피해 지역에 자비를...

의료봉사단 봉사 일정

스리랑카

- 콜롬보(1월 12일 선발대 도착 24일 귀국)
- 함반토타(16-18일 의료봉사)
- 탕갈라(19-22일 의료봉사)

밀려드는 환자... '희망' 이 특효약

해안선 복구에 집중, 구호 손길조차 못미치는 오지 피해민들 고통의 나날



조계종 의료봉사단장 지원 스님이 탕갈라 어린이에게 쌀을 전달하고 있다.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탕갈라 어린이들을 진료하는 모습.

서 공동단장 지원 스님(사회부장)과 진원 스님(호법부장)을 비롯한 조계종 의료봉사단원들은 베풀다는 마음을 여인 지비보살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1월 16일, 215명의 이재민이 임시거처로 사용하고 있는 탕갈라 공립학교에 임시진료소를 쓰일 천막이 세워지고 한국에서 공수해간 구호물품도 교실 한 칸에 차곡차곡 쌓였다. 내과, 외과, 소아과, 피부과로 나누어 한·양방 협진으로 첫 진료가 시작되자,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밀려들었다. 눈에 기대를 가득 머금은 채였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맨발로 진료소를 찾아온 자야쿠루(27·남)씨는 정강이뼈가 다 보일 만큼 짧은 상처를 내밀었다. "거대한 파도를 본 순간 무작정 뒤로 뛰었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국으로 기억했다. 조계종 의료봉사단에도 속속와 진료장소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신들의 어려운 처지 보다 의료봉사단을 먼저 배려하며 친절을 베풀었다. 조계종 의료봉사단의 거처였던 해양기술대학 기숙사에는 봉사단을 돕는 현지 자원봉사자들이 줄을 이었다. 한국어 통역 봉사한 스리랑카인 만줄라(30·남)씨는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와 준 한국의 봉사들 때문에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탕갈라와 함반토타에서 조계종 의료봉사단 이야기는 화제가 됐다. 소식은 입에서 입을 타고 빠르게 전해졌다. 그들이 조계종 의료봉사단에 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이야기로라도 고마움을 전하

조계종·동국대 스리랑카 지진해일 피해민 의료봉사 현장

주인을 잃은 무너진 집, 건물잔해가 널려있는 마을. 지진해일이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난 스리랑카는 사망자가 3만8천여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전쟁터 같은 참상을 그대로 안고 있다. 전국토의 75%에 해당하는 해안선이 피해를 입은 데다가 진행되는 복구활동이 도로나 기간시설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1월 12일 조계종 의료구호봉사단(이하 의료봉사단)이 찾아가는 스리랑카 탕갈라(Tangalle) 지역은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오지였다. 낙천적인 스리랑카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지진해일에 가족과 집을 모두 잃었습니다. 아무 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을..." 친구의 손에 이끌려 진료소를 찾은 마가와라(36·남)씨가 눈물을 보였다. 지진해일이 3살난 아

들과 5살의 딸, 아내를 잃은 모습을 목격하고도 손하나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를 진료소로 데려온 친구는 "이 친구가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명하니 앉아있지만 한다"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의료진에게 애원했다. 5천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스리랑카 남부부 함반토타(Hambantota)에서 만난 한 노인, 그에게서 짙은 절망이 배어났다.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진해일이 쓸고 간 것은 삶의 터전과 가족만이 아니다. 삶의 의지도 앓아가 버렸다. 그들은 정신적 인 충격으로 황망할 뿐이었다. 지진해일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조계종은 중단 사상 처음으로 해외 구호활동에 나섰다. 해일로 남편과 아내, 아이를 잃은 스리랑카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함이었다. 진료에 앞서 열린 개소식에

봉사단, 30도 넘는 기온 속 진료·구호활동 구슬 땀

지진해일을 피해 달리다가 생긴 상처였다. 치료를 맡은 최정화 간호사는 비오 듯 쏟아지는 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스레 상처를 어루만졌다. 조계종 의료봉사단은 탕갈라와 함반토타에서 1주일동안 내내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까지 진료해야 할 지경이었다. 점심시간도 따로 내지못해 2개조로 나누어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그러면서도 조계종 의료봉사단은 기간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이 동서 소아과 전문의(경주병원 불자회장)는 "의료인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또 종단을 대표한 봉사단 일원으로서 어려운 이들과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하다"고 했다. 70% 이상이 불교인 현지 주민들은 한국을 불교

고 싶었던 것이다. 그 속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이 떠올랐을 때쯤이면 순박함이 살아 있었다. 그래서일까. 진료소에서 만난 이재민과 현지주민들의 눈빛은 기대로 가득했다. 그들은 구호의 손길에서 어찌 희망을 떠올렸지도 모른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희망까지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부단장으로 참가한 조계종 사회국장 인오 스님은 "이번 구호활동은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한국불교와 한국인에 대한 믿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긴급재난에 대비한 종단기구의 필요성을 과제로 안겨주었다"고 말한다. 조계종 의료봉사단은 짧은 시간동안, 큰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얻은 셈이다. 글·사진/스리랑카=박병명 기자



30도를 웃도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의료봉사단을 찾은 스리랑카 탕갈라 주민들.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청운 스님 약력

- 대한천문풍수명리심명협회 대구지부장
- 평화불교대학 중앙이사
- 대한불교법사단지미봉사회 사무총장
- 티베트 승왕으로 불교대사수로
- 대한불교 조계종광해평사주지
- 한국불교대교종보경사주지
- 장애인 재활 모임체 초심회 집행위원장
- 현 대한불교조계종인복사주지

귀의 심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 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진품액자 + 열쇠고리 + 휴대폰줄 + 달마카드 + 탁상액자

9개(1 세트)가액 98,000원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적극 권해드리고 싶으신 분..

- 삼재가 드신 분
- 건강이 나쁘신 분
- 사업하시는 분
- 이사가시는 분
- 각종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
- 집안의 사형통을 기원하시는 분

귀인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SHOP
051-806-5587

***입금계좌(정정예) *농협: 949-02-315451**

진품 달마도 액자*규격: 44cm X 54cm

*계수대인 *소원성취

*Fe 나일론줄 +승룡도줄

*국화지액자 *달마도액자

*소재:아크릴액자+PP금장

*달마도액자 *소원성취

*계수대인 *소원성취

*달마도액자 *소원성취

*계수대인 *소원성취